

2005년도 시가문학 분야 연구 동향

조세형(서울시립대)

- 1. 머리말
- 2. 시가 연구 전반의 개관
- 3. 하위갈래별 동향과 그 해석
 - 3.1. 일반론, 기타
 - 3.2. 고대가요·향가
 - 3.3. 고려가요·경기체가
 - 3.4. 시조
 - 3.5. 가사
 - 3.6. 잡가·민요
- 4. 전망과 제언

1.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2005년도 한 해 동안 한국고전시가를 대상으로 연구한 성과들을 개괄하고 전반적인 동향을 살핌으로써 연구사적 진전을 가늠하는데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논의 범위를 제시하기로 한다.

우선적인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서울대도서관, 서울시립대도서관에서 검색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대개 전국 규모의 학술지, 그리고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국립대와 대표적인 사립대에서 배출한 학위논문 및 논문집 등이 검토의 대상이 된다. 기간으로는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식 간행된 자료들을 검토대상으로 한다. 다만 학위논문의 경우는 학사력이 이듬해 2월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이때까지를 그 범위로 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학술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국어국문학』 제139집, 국어국문학회, 2005. 5.
 『국어국문학』 제140집, 국어국문학회, 2005. 9.
 『국어국문학』 제141집, 국어국문학회, 2005. 12.
 『국어교육』 제116집, 한국어교육학회, 2005. 4.
 『국어교육』 제117집, 한국어교육학회, 2005. 8.
 『국어교육』 제118집, 한국어교육학회, 2005. 12.
 『국문학연구』 제13호, 국문학회, 2005. 6.
 『고전문학연구』 제27집, 한국고전문학회, 2005. 6.
 『고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고전문학회, 2005. 12.
 『민족문학사연구』 제27집, 민족문학사학회, 2005. 4.
 『민족문학사연구』 제28집, 민족문학사학회, 2005. 8.
 『민족문학사연구』 제29집, 민족문학사학회, 2005. 12.
 『고전문학과 교육』 제9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2.
 『고전문학과 교육』 제10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8.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6.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12.
 『韓國詩歌研究』 17, 韓國詩歌學會, 2005. 2.
 『韓國詩歌研究』 18, 韓國詩歌學會, 2005. 5.
 『韓國詩歌研究』 19, 韓國詩歌學會, 2005. 11.
 『古詩歌研究』 제15집, 한국고시기문학회, 2005. 6.
 『古詩歌研究』 제16집, 한국고시기문학회, 2005. 12.
 『시조학논총』 제22집, 한국시조학회, 2005.
 『우리어문연구』 제25집, 우리어문학회, 2005.
 『관악어문연구』 제29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4.
 (지난해 동향 분석에서 다루지 못함)
 『선정어문』 제33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5.
 『반교어문학회지』 제18집, 반교어문학회, 2005.

『東方學志』 제129집·제130집·제131집·제132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3.·6.·9.·12.

이 글은 먼저 전체 흐름의 파악을 위하여 ‘시가 연구의 전반적 개관’을 제시하고, 이어서 각 하위갈래에 따라 ‘구체적 동향 분석’을 구분 서술한 다음, 마지막으로 연구시각 내지 방법론 면에서 재론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논의하여 향후 전망을 세워 보고자 한다.

2. 시가 연구 전반의 개관

이 장에서는 본격적인 연구사 검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짚어본다. 어떤 전공영역이든 가장 치열한 지식의 생산현장이 학회라고 보면, 학회지만큼 학계 흐름을 잘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또, 그 분야의 학문후속세대가 성장하고 충원되는 모습은 학위논문을 통하여 확인된다. 이 둘을 한 자리에서 들여다보는 일은 그래서 흥미롭다.

국어학과 국문학을 망라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술지는 『국어국문학』이다. 지난해 세 차례 간행되어 시가연구 논문은 단지 다섯 편이 실렸다. 국어국문학 관련 모든 학회의 모(母)학회라 하는 국어국문학회가 노쇠하였다는 말이 나온 지도 이제 오래, 시가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 또한 멀어진 것처럼 보인다. 학문의 영역이 점차 분화, 전문화하는 가운데 각 영역의 논쟁을 첨예하게 담아내기 힘들어진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인문학 내지 국어국문학의, 또는 고전문학의 전반적인 위축에서 찾는다면 조금 더 충격적인 결과가 기다린다. 『국어국문학』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비슷한 연륜을 지닌 『국어교육』 또한 지난해 세 차례 간행되었으나, 시가연구 논문은 단 한 편도 실리지 않았다. ‘국어과’의 교육내용이 듣기·말하기·읽기·쓰기·국어지식·문학의 6개 영역으로 개편된 영향이 크다고 본다.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은 순치(唇齒)의 관계이겠는데, 편집진의 균형감각과 더불어 시가연구자들부터 분발이 요구된다.

이밖에 『민족문학사연구』도 세 차례 간행되었으나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지난해 네 차례나 간행된 『東方學誌』의 경우 한 편이 실렸다.

그와는 달리, 고전문학에 관해 전문성이 더 강조되는 경우에는 시가문학과 다른 영역 간의 균형이 잡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시가 내부의 하위갈래 사이의 불균형은 다시 드러난다. 1회 간행된 『국문학연구』에는 기획논문 1편과 자료 해제 1편을 포함하여 3편의 시가논문이 실렸는데, 조선후기로 집중되었다. 『고전문학연구』는 2회 간행되어 6편의 시가논문이 실렸다. 1편의 기획논문 외에 나머지 5편 모두 시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 지난 2005년의 연구경향을 짐작하게 된다.

『고전문학과 교육』은 고전문학연구와 고전문학교육을 공히 다루고 있는 학술지이다. 2회 간행되어 향가(2), 고려가요(1), 시조(3), 가사(4) 등 10편의 논문이 고전시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적 적용이 강조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관심의 방향이 문학교육이론, 문학치료, 여성주의 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2회 간행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는 전문성이 더욱 두드러져 여성주의 시각에서 시조, 가사, 민요 등을 바라본 논문이 4편 실렸다.

시가연구 논문이 단연 돋보이는 학술지는 『한국시가연구』이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이 된 한국시가학회는 짧은 연조에도 불구하고 시가연구자들의 폭넓은 합의 아래 이 분야의 대표 학회로 자리잡았다. 2005년에는 3회 간행되어 6편의 기획(‘시가연구의 새로운 전망과 방법’) 논문을 포함하여 25편의 논문이 실렸다.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등은 물론 한시, 민요, 음악 등 인접 장르까지 대상으로 하고 문헌론, 발생론, 배경론, 작품론, 일반이론 등 다양한 관심을 보여주는 풍성한 결과를 얻었다.

『고시가연구』도 2회 간행되어 10편의 논문이 실렸는데 시조와 가사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조학논총』에는 작가론, 문헌론, 글쓰기 등을 포함하여 시조와 관련한 9편의 논문이 있다. 이밖에 학과 발행 학술지인 『관악어문』에 2편, 『선청어문』에 1편의 논문이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반교어문학회지』로, 4편의 논문이 영역별로 고루 게재되어 있다. 학풍이 연구성과로 드러난 결과라 짐작한다.

한편, 지난해에 나온 시가 분야 학위논문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박사

학위논문 13편과 석사학위논문 7편이 제출되었다. 다른 분야의 논문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비교되며, 고전시가를 대상으로 논문을 쓴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석사취득자가 박사취득자보다 적은 역전 현상은, 국문학회 회원들을 보아도 그렇듯이, 고전문학 가운데서도 시가연구 지원자가 최근 줄어든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겠다. 인력수급, 진로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확인된 저서(단행본)는 총 17권이다. 향가·고려가요·시조·가사 등 각 갈래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자료집에서부터 현재적 적용의 문제까지 다양한 관심을 드러내었다.

이상 간행형태별로 2005년 시가연구의 동향을 개괄해 보았다. 단순히 수치로만 보자면 시조와 가사가, 그 가운데서도 시조가 단연 우세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향가 및 고려가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장 기초라 할 문헌학적 접근에서부터 이론적 접근까지, 텍스트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컨텍스트에 대한 관심까지 다양한 편폭을 가지고 ‘시가’라는 대상을 마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시가학계는 지난 시기 근대에 대한 열망을 문헌연구로써 증명하려는 시도들을 넘어서서 근대가 놓친 것, 중세적인 것의 가치 등을 차분하게 점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아직은 그 결과가 가시적이기는 힘들지만, 그러한 모색을 진지하게 행한 정중동의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3. 하위갈래별 동향과 그 해석

3.1. 일반론, 기타

시가연구의 방법론과 관련한 논의가 대표적이다. 박노준은 시가연구에서 시대, 공간, 갈래, 개별 작품을 넘어 ‘통으로 읽는 방식’이 필요하며 동시에 시가작품을 문예미학의 관점에서 성찰할 것을 역설하였다. 전체적인 구도를 그럴 줄 알면서 작품론적 논의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함을 다시 강조한

이 논의는 작금 시가연구의 문제를 지적한 혜언이다. 성기옥은 도남(陶南)의 업적을 불러내어 시가연구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민족사관, 심미적 이념론, 장르체계론으로 확장된 거시적 방법론이 미시적 분석에 길들여져 온 우리에게 경종이 된다는 지적은 박노준의 논의와도 접속되어 있다. 다만 말뚝박기로 땅을 차지하던 개척시대와 한 평 늘리기 힘든 시대의 논리는 다를 수밖에 없겠다. 박영주는 고전시가 텍스트의 이해를 위한 기본 시각으로 텍스트의 전승양상, 전승 서사문맥과의 상관성, 음악과의 상관관계, 연행문맥과 향유방식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미시적 연구와 거시적 이해의 괴리를 좁힐 수 있다고 보았다.

고전시가작품을 논의할 때 하나의 대상에 대해 특수성을 파악해 내기보다 그것을 범주화하여 일반원리를 발견해 내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다. 예컨대, 2005년에 박경우는 ‘별곡(別曲)’이라는 명칭이 고려가요, 경기체가, 가사 등 여러 장르에 걸쳐 다양하게 쓰였다고 보고 ‘별(別)’이 무엇에 대한 대립항으로서 규범이나 규칙을 벗어나려는 어떤 속성이라고 파악하였다. 이럴 때 가장 크게 걸리는 문제는 ‘별곡류 시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별곡’ 또는 ‘별’의 실체가 단일한가, 단일한 실체로부터 다양하게 변주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반화 과정에서 자칫하면 봉착하는 문제가 여기서도 발견된다.

나정순이 제기한 ‘고전시가의 현대적 계승과 변용’이라는 주제는 인문학의 항구적 관심사인 당대성과 현재성의 문제에 걸려 있다. 더구나 그것이 『우리 고전 다시 쓰기』라는 제목을 달고 있을 때,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글쓰기 또는 표현론의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친다. 대개 구조조정 논의에서 비껴나 있는 ‘예능 불패’의 신화는 학생들을 공급자 아니면 수요자로 확보하는 데서 출발한다. ‘눈높이교육’은 학생의 눈높이에서 시작하여 결국은 선생의 눈높이에서 끝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시사점이 많은 ‘자료집’이다.

김병국 외 13인이 지은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은 여성 담론, 여성 화자, 여성의 형상과 여성의 삶 문제 등이 우리 고전 시학의 본질 규명에 필수임을 전제하고 ‘여성 담론과 수사’, ‘여성 시가의 유형과 특질’, ‘여성형상과

여성의식' 등 3부로 논의를 통하여 그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가부장 제적 잔재를 버리는 한편 여성 운동론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인간 보편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논의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는 현대계 연구사에 부응하는 일이다. 이제 여성주의적 시각을 통한 시가연구는 몇몇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학계 전체가 응당 동참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논의는 기존의 여성주의적 연구성과와 대비 관독이 필요하다.

3.2. 고대가요 · 향가

확인한 논저는 11편이지만 단독저서 2권과 학위논문 2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방식에서부터 새로운 시도까지 적은 양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접근을 보였다.

임주탁·주문경은 작자, 연모 대상 등 숱한 쟁점을 안고 있는 <황조가>에 대해 관련서사 『삼국사기』 「유리명왕 3년」 조의 서술의도를 통하여 작품의 해석을 새롭게 하고자 하였다. 황병익은 <혜성가>의 왜병 침략·환국과 혜성 출현이 인접한 시기의 역사적 사실일 것이라는 기존의 추론을, 『일본서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더욱 분명히 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 양희철은 당대(唐代)의 비평용어인 왕창연과 교연의 ‘意’를 원용하여 <찬기과랑가>의 “其意甚高”가 ‘의격(意格)이 매우 높다’는 것임을 추론함으로써 기존 해석을 더욱 보완하고 있다.

두 편의 학위논문 또한 기존 논의를 보완하는 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창희는 향가의 성향 중 주술성에 주목하여 교육내용을 살폈으며, 김혜진은 향가의 서정성을 탐색하여 기존 논의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 김혜진의 연구는 분석의 틀(화자, 상황, 대상) 및 매개항(상실/승화, 현실/초월)과 그에 따라 추출된 서정성(이원론적 세계관) 등이 범박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김진욱도 향가문학의 문학적성을 밝히려는 시도를 하였다.

전통적인 향가연구 외에 쟁점의 소지가 있는 논의도 있다. 서명희는 들뢰즈의 ‘되기’ 개념을 빌려 <처용설화>는 처용이라는 존재가 다른 존재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다룬 것이며 <처용가>는 이 과정에서 문턱 넘기를 보

여주는 극적인 노래라는 해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나를 어떻게 변화하게 하는가를 묻는 물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제안은 향가연구의 한 방향을 암시하는 바 크다고 본다. 가장 큰 쟁점을 안고 있는 논의는, 역시 신재홍이 잇따라 2편의 논문에서 거론한 『화랑세기』 논란이다. 그는 향가 작가가 가공의 인물이라면 현존 향가는 역사적 의의를 부여받기 힘들고 따라서 문학사적 의미마저 사라진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콘텍스트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텍스트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질까. 문학연구 자료는 역사학 자료보다 항상 열등할 뿐일까. 허구적 가공물이라 해도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바라볼 필요는 없을까. 다만 향가 논의는 『삼국유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균여전』, 『삼국사기』, 『화랑세기』 같은 향가 관련 기록들을 참조해야 한다는 제안은 설득력이 있고 앞으로 연구가 이런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도 있다.

3.3. 고려가요 · 경기체가

고려가요연구 역시 기존 논의를 상세화, 정밀화하는 경우와 새로운 논의 거리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강금실은 향가와 고려가요 <처용가>의 전승과 변용이라는 오랜 주제를 가지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였다. 여기현은 『고려사』 악지 소재의 <오관산> <정산> <별곡조> <총석정>을 대상으로 고려가요의 형성과 재구를 논하였다. 이들은 궁중무악(宮中舞樂)으로 개편될 수 있었던 요인과 그 과정을 관심사로 하여 기존 논의를 상세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정재호는 <청산별곡>의 새로운 연구를 위하여 연구사를 정리하였고, 양태순은 <서경별곡>을 어식, 음악, 구조 등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서경별곡>을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로 보고 그런 시각에서 화자도 단일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른 측면의 접근과 종합됨으로써 합리적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허남춘은 <한림별곡> 논의를 통하여 경기체가가 도락적 풍류를 지향하였고 조선건국 초까지 악장의 역할을 하였다는 기존 견해를 재정리하였으며, 정무룡은 안축의 <관동별곡>이 존무사를 그만둔 다음에 창작되었고 <경상도팔영>이 기저를 이룬다는 사

실을 밝혀 이제까지의 논의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성과를 얻었다.

한편 현대적 적용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김수경은 고려가요의 ‘남녀상열(男女相悅)’은 오늘날 감각으로는 자연스런 성정의 토로일 뿐이며 그 질박성과 미적 소통방식이 현대 대중가요와 통합을 보여주었다. 고려가요가 집단공유의 정서에 호소하고 날카로운 비판과 풍자의 날을 세운다는 점을 발견함으로써 현대시와 대중가요에 계승될 예술적 특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박진태는 <정읍사> 및 관련설화를 지역 축제로 활성화하는 문화산업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를 위한 몇 개의 제안에 덧붙이자면, 일반인들로 하여금 축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면 예컨대 배역(配役)을 맡겨 상상적이고 낭만적인 체험에 빠져들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래 자랑, 미인 선발 등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른바 글로컬(global)한 발상이 있어야 세계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보며, 수행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

3.4. 시조

시조는 고전시가를 포함한 고전문학의 꽃으로 자리해 왔으며, 지금도 시가연구의 절반은 시조연구의 몫이다. 시조연구에는 그 풍성한 양만큼이나 풍성한 접근 시각과 방법이 동원되지만,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어난 연구과제가 있다. 이찬욱은 시조의 장르적 특성에 관해 재론하며 선곡후사(先曲後詞)의 특징을 지니는 민족예악이라 하였는데, 새로운 결론은 없지만 기존 견해를 음악 관련 논의로 보완하고 있다. 또 신용순은 현전 가곡 레퍼토리를 대상으로 주제를 분석하였으며, 이양훈은 특이하게 ‘영이귀(詠而歸)’ 모티프가 시조에 수용된 양상을 살폈다. 그리고 위홍환은 위백규에 대해, 김명희는 매창에 대해 작가론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시조연구에서는 드문 시도여서 주목되지만 자료를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익숙한 연구과제들과는 다르게, 2005년의 특징적인 풍경은 시조(나아가서 국문시)와 한시 사이의 학제간(?) 연구들이 활발하였다는 점이다. 김문기·김명순은 조선후기에 시조와 가사의 한역을 중심으로 방대하

게 출현한 한역시를 대상으로 하여 문학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문학의 존재양상이 국문문학과 한문문학의 교직이었던 이상, 양자에 함께 걸린 국문시가 한역의 문체는 중요하다. 조해숙은 대상을 시조한역에 한정하면서 조선중기부터 조선말기까지 시기별로 살펴 때로는 시조 원래의 모습을 존중하는 것으로, 때로는 한시의 양식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남을 밝히고 이는 시조사의 전개와 맞물려 있음을 논증하였다. 정소연은 신희의 시조와 절구를 비교함으로써 국문시가와 한시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어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인들의 문학행위가 한 영역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상식을 상기해보면 앞으로 연구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드러나는 셈이다. 김광조가 제출한 학위논문도 그와 동궐에 놓인다. 그는 권호문(權好文)의 ‘한거(閑居)’를 생애단계에 따라 선명히 하고 한시 <40절구>와 국문시가 <한거18곡>, <독락8곡>을 동시에 다루어 권호문이 이현보의 풍류적 효용에 표현적 측면을 가미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조선전기 시조에 대해서는 몇 편의 논문이 더 있다. 16세기 연시조의 성격을 고찰한 김상진의 논의는, 시조와 가사가 각기 길이가 길어지거나 서정화하면서 서로 닮아 갔다는 당대의 시가사적 국면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김명준은 <강호사시가>가 무기력한 일상이 되풀이되는 강호 공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려는 맹사성의 모색과 의지를 그린 것이라 하여 이제까지의 통설을 뒤집고자 하였다. 이는 어부 모티프 시가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와 관련되는데, 출처의 문제가 핵심에 놓인다 하더라도 꼭 출사의 의도가 본질적이고 더 강하다고 하기만은 힘들다. 16세기 재지사림의 강호시조를 살핀 한창훈은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내세워서 기존 논의를 복창하는 가운데, 권호문과 장경세가 사실적이고 경험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부기하였다. 김윤희는 경기체가 4편, 시조 15수를 남긴 주세봉에 주목하여 실생활에 근접한 논리를 활용하여 오류를 효율적으로 전파하려 한 작가 의식이 드러남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훈계와 교훈의 언술이 지니는 특징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그밖에 고정희의 논의도 있다.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언어

적 차이가 대화와 독백, 구어와 문어, 직설과 묘사 등으로 밝혀진다고 하는 그의 주장은 설득력과 무리함이 동시에 보인다. 퇴계의 시조가 상징으로, 율곡의 시조가 묘사로 차이나는 것은 그들의 철학과 각각 접속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그렇지만 퇴계와 율곡이 서로 다른 철학적 입장을 보이는 것도 동시대의 공통된 지평 안에서임을 감안한다면, 동질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만큼이나 이질성을 너무 부각시키는 것 또한 곤란하리라 본다. 또 상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알레고리는 예전부터 있어 왔으니, 서양이론의 미시적 적용에는 언제나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정희는 사실시조에 대해서도 논의를 남겼는데, 사실시조의 길이가 평시조보다 ‘길다’는 단순한 시학적 사실이 인식론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따져 매우 설득력이 있다. 다만 휘모리잡가가 사실시조와 다르다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그것이 물신주의의 단계에 이른 결과라고 한 것은 부회의 느낌이 있다.

사실시조에 관한 논의는 시조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정옥을 다시 불러낸 김용찬이 그의 『고장시조선주』를 교주 해설한 성과이다. 이에 따르면, 고정옥은 서민문학까지를 아우른 문학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지녔으며 그에 따라 사실시조에 관심을 보이고 『고장시조선주』를 지었다. 김용찬은 이와 관련하여 2편의 논문을 냈는데, 고정옥의 견해를 다만 전달하기만 하는 데 그친 점은 아쉽다. 사실시조가 조선 후기 새로운 담당층에 의해 시도된 문학이면서 실패한 문학이라 한 것은 고정옥의 민중주의가 지나쳤던 결과일 터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고 대안을 같이 고민하는 연구태도가 요청되는 것이다.

김종열은 사실시조의 작가의식을 탐색하여 학위논문으로 제출하였는데, 입론과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는 작품에 표출된 작가의식에 따라 작자층이나 발생시기에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음에도 작가의식에 대한 고찰이 없이 작자층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작자층에 대한 판단 여하에 따라 작가의식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사실시조 작가의식의 양면성을 공시적으로만 보아서는 텍스트의 역사성을 무시한 평면적 해석이 되고 만다. 통시적으로 존재하던 서로 다른 집단들의 언어들은

서로 공존하면서도 한편 기호론적 투쟁을 벌인 바, 그러한 현상을 규명해야 할 일이다. 이영태가 보여준 <각시네...> 시조의 해석은 일견 흥미롭다. 주장에 열거되는 짝들이 ‘수동성 : 능동성’의 관계로 짜여 있으므로 ‘짐장이’는 ‘주물장이’에 대응되는 ‘주물을 옮기는 짐꾼’이라 하여 새롭게 다가오지만, ‘각시’가 일반 아녀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논지의 신뢰성을 해친다. 김석희는 애초 이 노래가 수철장이 집단의 노래이던 것이 상업화한 것으로 보아 기존 논의를 재해석한 바 있는데, 그와 대체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이수곤은 사실시조의 본질적 속성으로 진지하지 않으며 유희에 봉사하는 ‘통속’을 들었다. 위의 고정옥의 예에서 언급했듯이, 사실시조 논의에서 민중주의적 편향의 문제를 불식하려는 시도는 건요하지만, 그것이 통속성 속에 개재한 진정성을 찾아내는 작업의 포기여서는 곤란하다. 어떤 언어들도 그 당대의 시대이념, 인식방법 등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류수열, 이형대 등이 사실시조의 유희(유희가 아닌)적 성격을 파악했지만 그 근처에 깔린 욕망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은 것이다. 또, 이영태는 프로이트의 농담 이론을 통하여 사실시조 가창공간에 있던 자들의 심리를 재구하고자 하였는데, 의욕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미지수이다.

김형철이 제출한 학위논문은 애정시조를 욕망이론으로 접근하는 시도였는데, 초자아로서의 타자에 의해 오히려 소외되는 애정시조 소통 주체라는 독법은 범박하다. 한 발 더 나아가려는 자세가 아쉽다. 이별 시조에서 화자가 배경과 하나가 되는 현상을 ‘중화(中和, neutraliza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 류수열의 논의는 의욕적이지만, 애정 모티프의 시는 기본적으로 배경을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동서양 시의 차이는 자연시에서 뚜렷하며, 대개의 인간에게 슬픔에 대한 반응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송지연은 애정시조를 예로 들어 시조의 관습성을 사유한 결과 개별체험은 대상의 체험이지 나의 체험이 아니라는 점에서 거리를 유발하며, 시조를 즐기는 집단이 공유하는 일반화된 정서가 부각되어 거기에 공감함으로써 집단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근대 서구 낭만주의 이후 강조되기 시작한 개성론의 편협을 넘어서 보편타당한 시론을 정립하는 일은 중요롭다.

시조의 현재성과 관련된 논의도 몇 편이 있다. 홍성란은 시조의 형식실험이 현대성을 모색해 가는 양상을 탐색하는 학위논문을 제출하였으며, 김학성은 시조가 장르로서의 당대적 가치를 성찰하여 그 독자적 미학을 되살림으로써 현재적 의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정기철은 시조의 전통적인 표현형식 안에서 새로운 시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조선후기 시조에 대한 연구는 18·9세기 향유 상황의 이해에 집중되어 있다. 박이정은 석문정이라는 공간이 형성되자 친인척과 동학을 중심으로 석문정가단이 형성되었던 사례에서 가문 및 향촌사회의 생활문화로서 지니는 의미를 추출하였다. 이는 경향분기 이후 중앙의 유흥문화와 구분되는 향촌의 생활문화로서 시조가 전승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다른 예가 될 것이다. 물론 시조 향유는 중앙에서 더 난만하게 이루어졌을 터인데, 남정희는 18세기 경화사족들이 시조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모습을 정리하였다. 그들은 당대 조선 사회의 지배질서의 유지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는 눈에 띄는 개방성과 자유로움을 보여주었다.

가집의 양상은 이 시기 시조를 이해하는 데 필수인 만큼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주석은 『가곡원류』를 음악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서한범은 가곡의 변주양상과 미적 특질을 규명함으로써 학위를 취득하였다. <매화사8절>을 복원하여 연행하고 그 음악미학 가운데 일종의 ‘비틀기’가 있음이 시가학계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연구가 축적되어 온 만큼, 이러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삭대엽(數大葉)’의 명칭은 짚어줄 필요가 있는 듯하다. 국악계에서는 여전히 “수대엽”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나 ‘만(慢)’에 대응하는 의미로는 “삭”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이상원은 김성기가 고조(古調)의 계승과 재창작에 상당한 애착을 가졌음을 증명하였고, 최규수는 『남훈태평가』라는 자료를 통하여 19세기 시조의 대중화 과정을 추적하여 저서로 내었다. 보급용 가집 『남훈태평가』가 수차 인간되었고 신문관(新文館)에서 ‘육전소설’ 시리즈로도 간행되었던 사실은 성무경이 밝혔는데, 그는 이어서 마에마(前間) 전사본 『고금가곡』이 가사부가 존재하는 등 원본에 충실한 자료임을 친절히 제시하고 있다. 실증적 작업에서 나아가, 다른 이본과 대비하는 작업, 당대의 시가사적 흐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 등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신경숙은 야연(夜宴)에는 순수 성악공연 ‘악가삼장(樂歌三章)’의 절차가 있어 가곡 세 곡을 연이어 가창하는 형태로 공연되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정병설은 아사미 문고에서 기생들의 시조연행상황을 보여주는 <염요>를 발견하여 보고하였다.

3.5. 가사

가사연구에서도 연행상황을 논의한 경우가 있다. 김은희는 조선후기 가창문학의 존재양상에 관심을 두어, 십이가사가 사대부 중심의 풍류방문화에서 비롯되어 시정문화를 거쳐 잡가문화 속으로 확산되어 갔음을 밝혔다. 임재욱은 십이가사 가운데서도 잡가계 가창가사들이 고려가요 작품들에 연원을 두고 있음을 정간보 비교로써 논증하였다. <길군악>과 <쌍화점>, <백구사>와 <한림별곡>, <매화사>와 <서경별곡>의 짝이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여요계 가창가사가 잡가 이전의 시가 장르와 잡가 사이에 존재하는 장르적 단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자료집이 2종 나왔다. 임기중은 영인본 상태에 있던 『역대가사문학전집』 전50권에 있는 미발표 작품들을 입력하고 주해한 결과를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20권과 『한국가사문학원전연구』 1권으로 출판하였다. 또 임형택은 17세기 중반의 <장유가>로부터 20세기 초의 <열가집>까지 10꼭지 46편의 가사를 입력·주해하였다. 모두 신자료라는 점에서 가사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가사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연군, 기행 등 주제별 접근일 것이다. 김팔남은 이른바 연정가사가 <미인별곡>의 찬미방식, <전후미인곡>의 서술방식, <원부사>의 여성 의식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보았는데 현상의 단순한 제시를 넘어 예컨대 상호텍스트성을 문제삼는 등의 시도가 아쉽다. 류연석은 <속사미인곡>이 <사미인곡>과는 달리 기행문학적 요소를 담고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새로운 시각의 고려가 요구된다. <금강산유람가>를 고찰한 최두식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

다. 가령 이 작품이 1920년 상업성을 띤 금강산여행 안내책자로 발간되었다면, 기행문학 성행의 문화사적 의미를 탐색하는 가운데 다이제스트판(소설의 간략화처럼)이 간행된 이유를 따지고 정보와 재미가 결국은 문예성과 상업성으로 연결된다는 식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금강산 기행가사의 언어미를 추적하고자 한 김기영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관동별곡>의 ‘몽중선인’이나 서술자 모두 작자의 대변인이라는 해석을 넘어서, 한 사람의 내부에 개재한 또다른 사람의 존재가 다성곡을 형성하고 이것이 결국 가사의 장르시학과 관련된다는 논의가 필요하다. 박영주도 기행가사의 진술방식을 문제삼았다. 우부식은 유배가사가 5유형으로 분류된다고 하고, 김보근은 풍수가사의 원전을 연구하여 <답산가>계, <회문가>계, <옥룡자유산록>계, <성거사답산부>계 등 넷으로 나누어진다고 고증하여 학위를 취득하였다. 김형태는 대화체가사를 대화방식에 따라 화답, 문답, 언쟁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존의 논의를 더 정밀하고 풍성하게 하였다.

여성주의적 논의는 가사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길자는 규방가사의 사적 전개에 맞추어 여성의식의 변모를 추적하였는데, 여성들은 19세기부터 자존지향의식을 드러내었으며 화전놀이 및 <화전가>에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고순희는 개화기 남녀동등론이 대두됨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여성담론이 개화가사에 투영된 양상을 살폈고, 백순철은 식민지 시대에 여는 여성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최송설당의 가사작품을 살펴 전통적 미학 속에 나타난 근대지향성을 읽어내었다. 김석회는 <복선화음가>를 대상으로 세 편의 논문을 써 집중적인 검토를 하였다. 그는 이 작품에 대해 계녀형에서 출발하여 표준형이 마련되고 이어 전기형의 이본들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추론하고, 후대본으로 갈수록 교훈성을 흥미성으로 대치하거나 아예 교훈 자체를 전복하는 모습을 보임을 밝히며, 과감한 여성의 형상을 부조해 낸 의미가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처럼 여성의 존재론적 조건을 형상화하는 데 가사의 장르시학 내지 수사법이 적절했기에 여성가사의 양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관련한 후속 논의가 더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김명준은 <일민가>가 강호를 즉물적이고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자족적

흥취를 제고하고 있으며 17세기 강호시가의 흐름과 동반하고 있다고 하였다. 시조 및 한시 쪽의 논의를 더 기다려 종합적으로 ‘17세기’의 의미를 다질 필요가 있겠다. 박연호는 원림문학의 공간의 위상을 규명하고자 하여 시가 이해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 다른 물체에 의해 상대화되는 위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정자와 그것을 둘러싼 신수를 바라봄으로써 면양정, 관한루, 지수정의 원림이 지닌 의미를 구분해 내고 있는 것이다.

3.6. 잡가·민요

민요에 관한 논의에서는 공교롭게도 시집살이노래에 대한 논의가 나란히 눈에 띈다. 서영숙은 1996년 그 자신의 저서로 학계에 보고했던 『시집살이노래 연구』에 이어, 다시 <시집살이노래>를 대상으로 전통사회에서 시집간 여자들이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에 따른 형상화의 문제를 다루었다. 새로운 자아가 가족의 변경에 서서 사랑으로 가득 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노래로 파악한 것은 절실한 문제의식의 소산이겠으나, 다소 범박한 결론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여성주의적 접근과 다른 방향에서, 박선애는 <가출형 며느리노래>를 대상으로 다루면서 서술구조의 양상을 유형별로 파악하였다. 특히 그가 이 계열 민요의 구조분석을 통해 사건의 서사적 진행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으므로 서정장르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석회는 경남 함양의 재지사족 서인순의 <전가부(田家婦)>와 <시가부(詩家婦)>에 대해 여성주의적 독법으로 읽고 있다. 민요와 한시가 접속한 사례이므로 한문학에서, 또는 시가문학의 민요 부분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 남성의 작품임에도 ‘여성의 목소리’로 ‘여성의 형상’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포착한 이 논의는, “여성적 글쓰기”의 내포와 외연에 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중인 현재 학계에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한편, 조규익은 공식구의 개념과 흡사한 ‘문틀’이라는 말을 제보자들이 쓴다는 사실을 밝혔다. 서양의 문학이론에서 쓴 용어를 이미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었다는 점을 찾아낸 것

은 의의가 적지 않다 하겠으나, 다른 이론적 함축을 더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 용어를 씌으로써 더 많은 문학현상을 설명할 수 있거나 수정, 보완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례와 견주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형대는 선소리 <산타령>을 통해 잡가의 당대적 언어미학을 찾고자 하였다. 근대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지적 관심, 그리고 고전문학과 근대문학의 접속을 시도하는 국문학연구 내부의 오랜 요구에 고전시가 영역에서 반응한다면 길은 몇 갈래가 있을 것이다. 학계에서는 근대 대중가요의 기원을 모색하는 작업 또한 그 가운데 하나가 되리라 동의하고 있는데, 당대적 의미를 충분히 친착함으로써 현재적 의미에까지 명쾌히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전망과 제언

이제 2005년 고전시가 분야의 연구동향을 일별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삼을까 한다.

첫째, 몇몇의 사례에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 몇 편의 논문을 연속적으로 쓰는 현상이 목격되었다. 대개 이러한 상황은 <단행본>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에 꾸준히 집중하는 경우; <학위논문> 기동성있게 학계 내외의 이슈에 대응하는 경우; <학술지 논문> 손쉽게 편수를 늘리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단행본>은 학문적 성실성과 진정성의 발로로서 오히려 장려해야 할지 모를 일이며, <학위논문>은 기존의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예컨대 기획발표에 참여한다거나 하는 것이므로 역시 학자적 의무를 다한 결과가 되리라 본다. 문제는 <학술지 논문>이다. 우리는 학자로서 논문의 홍수 속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동료 전공자로서 서로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고전시가 분야에서 방법론적 전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문제이다.

가. 심리학 또는 정신분석학의 방법이 최근 관심을 끄는 것은 그것이 이른바 문학치료적 접근방식에 정면으로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신경과학에서는 정신분석의 여러 이론 가운데 무의식(無意識)의 존재, 자아(自我)의 분열(分裂) 등 두 가지만 인정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산업화’에 성공했다는 그 이유로 위대한 것이며, 약물에 의한 치료만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학치료는 과연 진단과 처방의 매뉴얼화가 가능하겠는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러한 차원을 떠나서 보면 심리학 또는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문학, 그리고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 바탕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시가연구에서도 성 소재 사설시조의 해석, 가사의 장르시학 등 여러 문제가 걸려 있다.

나. 여성주의는 생태주의와 더불어 21세기 탈근대(脫近代)의 대안(代案)이 되리라고 많은 이들이 기대한다. 그런데 이를 두고서 고전문학에 적용하기가 까다롭다고 하나,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은 이미 주어진 이론 내지 생각의 ‘적용’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원론적인 데 대한 고심의 그 끝에 ‘적용’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미 우리는 근대 그 너머의 시대로 나아가 있는 셈이다.

다. 문체론과 장르시학은 객관적 장르표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 한 그 가치는 지속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론이다. 가령 사설시조, 후기가사 등의 문학현상을 두고 우리는 그 장르특성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평시조, 전기가사와는 각각 어떻게 다르며, 함께 조선전기 국문시가와 구별되는 조선후기 국문시가의 특성을 어떻게 공유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객관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시학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서양 이론을 날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컨대, 전통시기 동서양 문화의 큰 차이 가운데 하나로 시각문화(문자언어 위주)와 청각문화(음성언어 위주) 사이의 간격을 지적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이미지의 융성’은 서양 근대의 출발과 깊이 관련되는 현상인 것이다. 이처럼 의미있지만 힘든 이 작업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관심을 보이고 지혜를 모아 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시가문학은 그 특성상 ‘장르’를 무시할 수 없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자료를 구분 배열하되, 각각의 영역 안에서 다시 <단행본>저서, <학위논문>학위논문(박사, 석사), <학술지 논문>일반논문 등의 셋으로 나누기로 한다.

1. 일반론

<단행본>

김병국 외,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서울: 월인, 2005.

나정순, 『우리 고전 다시 쓰기: 고전시가의 현대적 계승과 변용』, 서울: 삼영사, 2005.

조기영, 『한국시가의 자연관』, 서울: 북스힐, 2005.

<학위논문>

朴慶禹, 「別曲類 詩歌의 題名慣習과 空間意識 研究」, 延世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5.

<학술지 논문>

박경우, 「이른바 ‘別曲’이란 명칭에 대한 재론」,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9.

박노준, 「시가연구 방법론 數題(기조발제)」, 『韓國詩歌研究』 17, 韓國詩歌學會, 2005. 2.

박영주, 「고전시가 텍스트 이해의 기본 시각」, 『반교어문학회지』 18, 반교어문학회, 2005.

성기욱, 「한국 시가 연구와 陶南」,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6.

신두환, 「고전시가에서 문자 메시지와 이미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일 연구」, 『韓國詩歌研究』 17, 韓國詩歌學會, 2005. 2.

임주탁, 「조선조 시가 문학에 나타난 가족의 일상」, 『국문학연구』 13, 국문학회, 2005. 6.

2. 고대가요·향가

<단행본>

김정주, 『신라향가연구』, 광주: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5.

김진욱, 『향가문학론』, 서울: 역락, 2005.

<학위논문>

김혜진, 「향가의 서정성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정창희, 「향가교육 내용 연구: 주술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학위논문, 2005.

<학술지 논문>

서명희, 「‘되기’의 문학과 생성적 텍스트: <처용가> 읽기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1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8.

신재홍, 「미실과 사다함, <송사다함가>와 <청조가>」, 『고전문학과 교육』 1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8.

_____, 「향가의 작가와 향유방식」, 『선청어문』 3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5.

양희철, 「唐代批評으로 본 ‘其意甚高’와 <찬기과랑가>」, 『韓國詩歌研究』 18, 韓國詩歌學會, 2005. 5.

임주탁·주문경, 「<황조가(黃鳥歌)>의 새로운 해석: 관련서사의 서술 의도와 관련하여」, 『관악어문연구』 29,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4.

최정선, 「고대 한일 가요의 전승과 변이에 관한 비교 연구: 풍요와 일본서기의 노동요를 중심으로」, 『古詩歌研究』 15,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6.

황병익, 「<擘星歌>의 쟁점과 의미 고찰」, 『韓國詩歌研究』 17, 韓國詩歌學會, 2005. 2.

3. 고려가요·경기체가

<단행본>

임주탁, 『고려시대 국어시가의 창작 전승 기반연구』,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5.

<학위논문>

康錦實, 「항가 ‘처용가’와 고려가요 ‘처용가’의 전승·변용 과정 연구」, 濟州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05.

<학술지 논문>

김수경, 「속요와 대중가요의 質料性과 美的 疏通方式」, 『韓國詩歌研究』 19, 韓國詩歌學會, 2005. 11.

박진태, 「정읍사의 확산과 지역 축제로의 회귀」, 『고전문학과 교육』 1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8.

양태순, 「〈서경별곡〉의 종합적 고찰」, 『국어국문학』 139, 국어국문학회, 2005. 5.

여기현, 「고려 속악가사의 형성과 재구(2): <五冠山>, <定山>, <伐谷鳥>, <叢石亭>을 중심으로」, 『반교어문학회지』 18, 반교어문학회, 2005.

정무룡, 「安軸의 <관동별곡> 창작 시기와 그 배경」, 『韓國詩歌研究』 19, 韓國詩歌學會, 2005. 11.

정재호, 「〈청산별곡〉의 새로운 이해 모색」, 『국어국문학』 139, 국어국문학회, 2005. 5.

허남춘, 「〈한림별곡〉과 조선조 경기체가의 향방」, 『韓國詩歌研究』 17, 韓國詩歌學會, 2005. 2.

4. 시조

<단행본>

고정옥 저, 김용찬 교주 해설, 『(교주)고장시조선주』, 서울: 보고사, 2005.

김문기·김명순, 『조선조 시가 한역의 양상과 기법』, 서울: 태학사, 2005.

김덕현, 『시조문학 교육론』, 서울: 박이정, 2005.

남정희, 『18세기 경화사족의 시조 창작과 향유』, 서울: 보고사, 2005.

조해숙, 『조선후기 시조한역과 시조사』, 서울: 보고사, 2005.

최규수, 『19세기 시조 대중화론』, 서울: 보고사, 2005.

<학위논문>

金光朝, 「松巖 權好文의 詩歌文學 研究」, 서울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5.

김종열, 「사설시조의 작가의식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金亨哲, 「朝鮮時代 愛情時調 研究」, 全南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5.

文做碩, 「《歌曲源流》 研究」, 嶺南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5.

이수근, 「사설시조의 통속문학적 성격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徐漢範, 「歌曲의 變奏樣相과 美的 特質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5.

洪性蘭, 「시조의 형식실험과 현대성의 모색 양상 연구」, 成均館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5.

金允姬, 「周世鵬의 國文詩歌 研究」, 高麗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05.

김은주, 「辭說時調의 演行에 나타난 遊興문화적 특성」,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吳善珠, 「申欽의 時調 研究」, 全北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05.

李揚薰, 「詠而歸 모티프의 文學的 受容과 時歌史的 展開 樣相」, 高麗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05.

<학술지 논문>

고정희,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언어적 차이와 시가사적 의의」, 『국어국문학』 141, 국어국문학회, 2005. 12.

_____, 「사설시조의 장형성(長型性)과 이행기 문학적 의의」, 『고전문학과 교육』 1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8.

김명준,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의 창작 시기와 세계상」, 『古詩歌研究』 15, 한국고시기문학회, 2005. 6.

김명희, 「허균과 매장의 시조」, 『시조학논총』 22, 한국시조학회, 2005.

김병국, 「松巖 權好文 시가의 미적 특질」, 『韓國詩歌研究』 19, 韓國詩歌學會, 2005. 11.

김상진, 「연시조 성격의 대비적 고찰: 16세기 작품을 대상으로」, 『시조학논총』 22, 한국시조학회, 2005.

김용찬, 「고정옥의 ‘장시조론’과 작품 해석의 한 방향: <고장시조선주>를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22, 한국시조학회, 2005.

_____, 「고정옥의 시조관과 <고장시조선주>」,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6.

_____, 「사설시조 속의 가족과 그 주변인들: 고부(姑婦), 처첩(妻妾)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12.

김진희, 「〈慢大葉〉을 통해 본 시조의 형식적 기원」, 『韓國詩歌研究』 19, 韓國詩

- 歌學會, 2005. 11.
- 김창원, 「<陶山十二曲>의 형상 세계와 佛敎」, 『우리어문연구』 25, 우리어문학회, 2005.
- 김학성, 「시조의 양식적 독자성과 현재적 가능성」, 『韓國詩歌研究』 19, 韓國詩歌學會, 2005. 11.
- 류수열, 「이별 시조의 배경 중화 현상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2.
- 박을수, 「『韓國時調大事典』 補遺 (6)」, 『시조학논총』 22, 한국시조학회, 2005.
- 박이정, 「石門亭詩歌壇의 성립과 그 의미」, 『韓國詩歌研究』 17, 韓國詩歌學會, 2005. 2.
- 성무경, 「普及用 歌集 <남훈태평가>의 印刊과 시조 향유에의 影響(1)」, 『韓國詩歌研究』 18, 韓國詩歌學會, 2005. 5.
- _____, 「주제별 분류 가곡 가집, 『古今歌曲』의 문화도상 탐색」, 『韓國詩歌研究』 19, 韓國詩歌學會, 2005. 11.
- 송지연, 「시조의 관습성과 탈관습성을 통한 고전문학교육의 구상」, 『고전문학과 교육』 1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8.
- 신경숙, 「夜宴의 ‘樂歌三章’ 연구」, 『古詩歌研究』 16,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12.
- 신연우, 「時調와 서울 古 노랫가락의 관계」, 『東方學志』 제132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12.
- 신웅순, 「가곡의 시조시 주제 연구」, 『시조학논총』 22, 한국시조학회, 2005.
- 유정선, 「시조에 나타난 자연과 생명」, 『韓國詩歌研究』 17, 韓國詩歌學會, 2005. 2.
- 윤덕진, 「『古今歌曲』의 장가 체계」,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12.
- 이상원, 「조선 후기 예인론: 약사 김성기」, 『韓國詩歌研究』 18, 韓國詩歌學會, 2005. 5.
- 이영태, 「'각씨네[네]~' 시조의 검토와 <각씨네 내 쫓이 되나>의 해석」, 『시조학논총』 22, 한국시조학회, 2005.
- _____, 「사설시조의 가장공간과 가장 참석자들의 심리: 프로이트의 농담이론을 통하여」,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6.
- 이찬욱, 「時調와 別曲의 장르적 特性」, 『시조학논총』 22, 한국시조학회, 2005.
- 정기철, 「새로운 매체문화시대의 글쓰기와 시조」, 『시조학논총』 22, 한국시조학회, 2005.
- 정병설, 「기생 잔치의 노래: <艷謠>」, 『국문학연구』 13, 국문학회, 2005. 6.
- 정소연, 「象村 申欽의 절구와 시조 구조 비교」,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12.

- _____, 「申欽 시조의 連作性 考究」, 『韓國詩歌研究』 17, 韓國詩歌學會, 2005. 2.
- _____, 「절구의 시학과 시조의 시학: 象村 申欽의 방축 및 유배기 작품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29,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4.
- 최규수, 「표제의식의 측면에서 본 권섭 연시조의 특징적 양상과 18세기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12.
- 한창훈, 「16세기 在地士林 江湖時調의 양상과 전개」, 『시조학논총』 22, 한국시조학회, 2005.

5. 가사

<단행본>

- 김은희, 『조선후기 가창문학의 존재양상』, 서울: 보고사, 2005.
- 이진호, 『신문학기 가사문학의 연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5.
- 임기중 편저, 『한국가사문학원전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5.
- 임형택 편, 『옛 노래, 옛 사람들의 내면풍경: 신발굴 가사자료집』, 서울: 소명출판사, 2005.
- 정길자, 『규방가사의 사적 전개와 여성의식의 변모』,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5.

<학위논문>

- 金甫根, 「風水歌辭 原典研究」, 東國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5.
- 김형태, 「對話體 歌辭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안혜진, 「18세기 향촌사족 가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禹富植, 「유배가사 연구」, 忠南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5.
- 鞠潤周, 「애경당 남극엽의 시가 연구」, 全南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05.

<학술지 논문>

- 강경호, 「19세기 가사의 향유 관습과 이본 생성: <노처녀가(2)>와 그 관련 작품을 통해 본 가사 향유의 한 양상」, 『반교어문학회지』 18, 반교어문학회, 2005.
- 고순희, 「개화기 가사를 통해 본 여성담론의 전개양상과 특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6.
- 구사회, 「새로 발굴한 신승구(申升求)의 <관동별곡번사(關東別曲繙辭)>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39, 국어국문학회, 2005. 5.

권태호, 「규방가사 <봉우이별가라>로 본 각편 읽기 방법론」, 『우리어문연구』 25, 우리어문학회, 2005.

김기영, 「금강산 기행가사의 언어미」, 『古詩歌研究』 15,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6.

김명준, 「<일민가(逸民歌)>의 의식지향과 시가사적 의미」, 『韓國詩歌研究』 18, 韓國詩歌學會, 2005. 5.

김석희, 「문학사의 맥락에서 본 복선화음류 가사의 인물형상」, 『고전문학과 교육』 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2.

_____, 「복선화음가 이본의 계열상과 그 여성사적 의미」, 『韓國詩歌研究』 18, 韓國詩歌學會, 2005. 5.

_____, 「우산본 복선화음가의 가문서사 양상과 그 여성사적 함의」, 『고전문학과 교육』 1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8.

김종진, 「<서왕가> 전승의 계보학과 구술성의 층위」, 『韓國詩歌研究』 18, 韓國詩歌學會, 2005. 5.

_____, 「<토굴가> 전승의 경로와 문학사적 의의」, 『우리어문연구』 25, 우리어문학회, 2005.

_____, 「枕肱의 <太平曲>에 대한 현실주의적 독법」, 『韓國詩歌研究』 19, 韓國詩歌學會, 2005. 11.

김팔남, 「연정가사의 형성 배경에 대하여」, 『古詩歌研究』 15,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6.

류연석, 「<續思美人曲>의 紀行文學性 考察」, 『古詩歌研究』 16,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12.

류연석·양동식, 「金炳淵 詩集 翻譯 檢討」, 『古詩歌研究』 15,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6.

박경주, 「변형계녀가의 장르적 특성과 담화 양상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2.

_____, 「화진가의 의사소통 방식에 나타난 문학치료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1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8.

박연호, 「원림문학의 공간의 위상과 문화 교육적 의미」, 『韓國詩歌研究』 17, 韓國詩歌學會, 2005. 2.

박영주, 「기행가사의 진술방식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 『韓國詩歌研究』 18, 韓國詩歌學會, 2005. 5.

백순철, 「崔松雪堂 歌辭의 문체와 현실인식」, 『古詩歌研究』 15,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6.

양태순, 「규방가사에 나타난 ‘한탄’의 양상」, 『韓國詩歌研究』 18, 韓國詩歌學會, 2005. 5.

임재욱, 「조선후기 가창가사에 보이는 잡가적 경향의 연원」, 『국문학연구』 13, 국문학회, 2005. 6.

최두식, 「金剛遊覽歌의 美的 世界」, 『古詩歌研究』 15,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6.

6. 잡가·민요

<학술지 논문>

박선애, 「시집살이 노래의 서술구조의 양상과 그 의미: <가출형 며느리노래>를 중심으로」, 『반교어문학회지』 18, 반교어문학회, 2005.

서영숙, 「가족의 변경에 서서 부르는 노래: <시집살이노래>에 나타난 여성과 가족(기획특집: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6.

이형대, 「선소리 산타령을 통해 본 잡가의 당대적 언어미학」, 『韓國詩歌研究』 19, 韓國詩歌學會, 2005. 11.

조규익, 「문들의 존재양상과 의미」, 『韓國詩歌研究』 18, 韓國詩歌學會, 2005. 5.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대인, 「金剛山 紀行歌辭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윤숙, 「최근작 내방가사의 창작의식 변화 양상」, 위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金貞九, 「<萬憤歌> 研究」, 朝鮮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05.

金泰慶, 「<草堂問答歌> 연구」, 成均館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05.

吳和淑, 「訓民時調 研究」, 朝鮮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05.

이환, 「조선후기 평민가사의 성격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임혜영, 「최승설당 가사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鄭澈, 「象村 時調의 表現 樣式 研究」, 高麗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05.

조성덕, 「무이도가의 변형과 수용에 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조진희, 「화담형 규방가사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최정은, 「朝鮮後期 身邊歎息類 內房歌辭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